

사무엘상 30장에 나타난 다윗의 전리품 분배 원칙: 현대 정의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내연(명지대)

1. 들어가는 말

사무엘상 30장은 전리품 분배에 관한 논쟁이 담겨 있다. 전방에 투입된 일부 병사들은 자신들의 공훈을 주장하며 차등 분배를 주장한다. 하지만 다윗은 전방 병사들 못지않게 후방 병사들의 기여 또한 중요함을 부각하고, 승리의 근원이 야웨의 보호에 있음을 강조하며 동등 분배를 강조한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전리품 분배는 중요한 사회윤리적 문제였다. מַלְכָּם(헤렘) 명령이 부과된 전쟁에서는 전리품 취득이 금지되었지만, 이 명령이 부분 적용된 전쟁 또는 이 명령과 무관하게 수행된 전쟁에서는 전리품 취득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 사무엘상 30장의 전쟁은 מַלְכָּם(헤렘) 명령과 무관한 전쟁으로서 전후 전리품 재분배에 대한 논

* 본 논문은 한국성서연구소 구약학 신진학자 콜로키움(2025년 8월 21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쟁과 원칙이 등장하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무엘상 30장을 내러티브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야기에 담긴 다위의 분배 원칙을 구약의 전리품 재분배 논의와 현대 분배 정의 담론과의 해석학적 대화 속에서 조명하고, 그 의의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본문이 보여주는 공정이 능력에 따른 차등이 아니라 공동체적 연대에 기반하며, 그 윤리적 토대에는 공동의 가치(아웨 신앙) 기반한 공동체적 상호 신뢰에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2. 이야기로서 사무엘상 30장의 문학적 서술 전략

사무엘상 30장은 큰 틀에서 역사 장르에 속하나 동시에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story)로 정의할 수 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서술은 있는 그대로의 건조한 사실 전달을 넘어, 특정한 가치에 기반하여 사건을 묘사하고 평가하는 특징을 갖는다. 마이어 스텐버그(Meir Sternberg)가 지적했듯, 본문의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기교를 넘어 본문을 지배하는 이념적 관점을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특히 사무엘상 30장의 서술자는 전지적 시점에서 인물 간의 갈등과 해결 과정을 묘사한다.¹ 서술자는 도입부(1절)에서 독자들에게 사건의 배경과 범인(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의 선제적 제공은 독자와 등장인물 사이에 인식의 격차(gap)를 만들어내며, 독자로 하여금 사건의 전개

1 스텐버그는 이러한 전지적 관점이 마치 호메로스 문학의 경우처럼 신적 권위를 대변한다고 보았다. Meir Sternberg, *The Poetics of Biblical Narrative: Ideological Literature and the Drama of Reading*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89. 포켈만(J. P. Fokkelman)은 문학적 관점에서 성서 속 서술자는 전지적 연출가(omniscient ringmaster)의 특성을 가졌다고 평가한다. J. P. Fokkelman, *Reading Biblical Narrative: An Introductory Guide*, Ineke Smit(tran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9), 56.

과정을 관조적 위치에서 바라보게 만든다.² 또한 서술자는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사건에 대한 권위 있는 평가를 내린다. 25절에서 다윗이 세운 분배의 원칙이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는 진술이 대표적이다. 이는 서술자가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하던 사건 당시보다 훨씬 후대의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서술자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하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무엘상 30장 내러티브는 뚜렷한 가치 지향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³

사무엘상 30장은 사무엘상 21장부터 사무엘하 1장까지 다윗이 장인 사울의 낯을 피해 광야를 방랑하며, 출신과 배경이 모호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용병대를 꾸려 활동하는 이야기의 구조 안에 놓여있다. 좀더 세밀하게 보자면, 본문은 사무엘상 27장 이후 블레셋의 승인 아래 다윗과 그의 용병대가 시글락에 정착하던 당시 상황을 다루고 있다.⁴

사무엘상 30장은 크게 발단(1-5절), 전개(6-15절), 절정(16-20절), 위

2 Tony W. Cartledge, 1 & 2 *Samuel* (SHBC; Macon, GA: Smyth & Helwys Publishing, 2001), 331-332.

3 스텐버그는 성서 서술이 단순한 교훈(didacticism)의 주입을 넘어, 역사 서술의 틀 안에서 예술허적 기교를 통해 독자적 세계관을 정교하게 그려낸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그는 텍스트의 고고학적 사실 여부를 따지는 ‘진리값(truth value)’보다, 텍스트가 스스로 역사임을 표방하며 무엇을 주장하는지에 초점을 두는 ‘진리 주장(truth claim)’을 해석의 우선적 전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Sternberg, *윗 글*, 36-38, 41-48, 81-82, 159-163.

4 시글락은 가드의 서남쪽 네겟 광야 북부에 위치한 블레셋의 도시로, 이후 다윗 왕조의 소유가 되었다 (삼상 27:6). 과거 정착 초기엔 유다 지파(수 15:31) 또는 시므온 지파(수 19:5)에 분배된 땅이었다. 이 도시는 다윗이 그의 용병대와 함께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2차 망명을 요청할 때, 그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갈 터전으로 할당받은 곳이다 (삼상 27:6). 1차 망명 시에는 다윗이 개인 신분으로 보호를 요청한 사항이라, 당시에는 그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삼상 21:10-15). 남쪽에서 올라온 아말렉 도적떼들이 시글락을 노략할 당시 다윗과 그의 용병대가 북부 출정을 간 고로 도시는 완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다(삼상 30:1). 이야기의 맥락 속 시글락은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 놓인 도시이지만, 동시의 다윗은 이 도시를 거점으로 유다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삼상 30:26-31).

기(21-25절), 결말(26-31절)의 5막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위기 부분에 등장하는 다윗과 일부 참전 병사들 간의 전리품 분배에 대한 견해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이다. 전지적 서술자는 이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활용한다. 예컨대 독자와 등장인물 간 정보의 비대칭을 연출하거나 서술 속도를 조절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여 윤리적 딜레마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최종 국면의 논쟁에서 그 딜레마가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1) 발단: 정보 비대칭과 아이러니(1-5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지적 관점의 서술자는 1절에서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 침입자의 정체(아말렉)를 독자들에게 먼저 노출시킨다.⁵ 이 때 서술자는 다윗과 용병대가 아침 일찍 일어나 남쪽 블레셋 땅으로 사흘 만에 귀환했다고 단 두 절로 간단하고 빠르게 묘사한다.⁶ 특히 사흘 길이라는 시공간 사이에 인물들이 어떤 사건과 갈등을 겪었는지 등은 독자가 의미를 구성해야 할 영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무엘상 30장 9-10절에서 삼 분의 일이 중도에 피로감을 호소하며 후방에 남게 된 사건은, 이야기의 흐름 상 앞서 서술된 사흘 길의 귀환 여정과 연결하여 살펴본다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삼상 29:11-30:1a).⁷ 이제 막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과 그의 용병들은 누가 자신들의 성읍을 침

5 Robert B. Chisholm Jr. 1 & 2 *Samuel* (TTCS;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13), 332.

6 Francois Tolmie, *Narratology and Biblical Narratives: A Practical Guide* (Eugene, OR: Wipf and Stock, 2012), 93-99.

7 아벡에서 시글락까지의 거리는 약 80킬로미터(50마일) 정도이다. Chisholm, 1 & 2 *Samuel*, 331. David G. Firth, 1 & 2 *Samuel* (AOTC;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8), 305.

탈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누군가에 의해 성읍이 불에 타고, 그들의 가족과 재산은 모조리 약탈된 상황에 망연자실한다(5절).⁸ 이를 통하여 이야기의 틈을 메꿔야 하는 것은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이 아닌 이야기 속 인물들이 되는 아이러니가 형성된다.⁹

2) 전개: 지연 전략과 윤리적 시험(6-15절)

이미 독자들이 결과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6절부터 15절은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 전개 과정을 상세히 묘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연 전략을 통해, 플롯의 긴장감을 높이고 독자들의 흥미를 유도한다. 먼저, 시글락에서 다윗이 부하들의 반발로 인하여 리더십의 위기에 직면하는 장면이 등장한다(6-8절). 이 장면은 다윗이 사울의 경우와 달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준다. 부하들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던 사울의 경우와 달리(삼상 15:24), 다윗은 제사장에게 나아가 야웨의 뜻을 먼저 구한다(7절). 위기의 순간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야웨는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지만(삼상 28:2), 신실한 다윗에게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8절).

다음으로, 장면이 전환되어 다윗과 그의 600명의 병사가 약탈자를 추적하며 브솔 시내에 이르는 장면이 등장한다(9-10절).¹⁰ 여기서 병

8 이는 다윗의 용병대가 사무엘상 27장 8-9절에서 아말렉인과 인근 민족에게 행한 행위와 유사하지만, 아말렉 도적떼들은 시글락 거주민들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납치했다(삼상 30:2). 납치자 명단에는 다윗의 두 아내(아히노암, 아비가일)와 자녀들, 그리고 용병 600명의 아내와 자녀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삼상 27:3; 30:3, 17-20). 이러한 행위는 어떤 정치적, 종교적, 윤리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기보단, 인력과 재산을 확보하려는 경제적 목적에 근거한 행위로 판단된다. David Jobling, *1 Samuel* (BO;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1998), 181.

9 이야기의 틈(gap)에 관한 이론적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Sternberg, 윗글, 186-229.

10 다윗의 용병대는 말 그대로의 직업 용병대였다기보다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소외된 자들의 연합 성격이 강했다. 더욱이 초창기 아둘람 굴 시절의 경우, 다윗의 무리 안에는 군사적으로 유능한 자들도 있었겠지만, 각양각색의 여러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도 함

사들의 삼분의 일이 체력의 문제로 후방에 머물게 되고, 나머지 삼분의 이의 병사들만 더 진군할 수 있게 된다. 그 배경에는 기후와 환경 적응 문제도 있었을 것이다. 남부 광야 지대는 북부 평야 지대와 전혀 다른 기후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병사들은 아백에서 시글락까지 사흘 길을 이동한 뒤에 연이어 남쪽으로 이동하는 중이므로 일부는 체력적으로 피로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 장면은 이후 벌어진 전리품 분배 논쟁으로 인한 공동체의 분열을 예고한다. 이야기 속에서 아말렉 도적떼가 숨어 있는 지역은 험준한 네겟 광야 지대이다. 북쪽 전선에서 갓 복귀하여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남쪽으로 강행군을 펼쳐야 했던 병사들에게, 이러한 급박한 환경의 변화와 누적된 육체적 피로가 심각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 장면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장면이다(11-15절). 다윗과 400명의 병사들이 남쪽 광야로 내려가 침략자를 추적하는 중에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이집트인 소년을 예기치 않게 발견한다. 심지어 이 소년의 건강상태는 그리 좋지 않아, 광야에 방치되어 사경을 헤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다윗과 용병대는 그를 위협하고 박대하기보다, 사흘 간 그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며 호의를 베푼다(11-12절). 이로 인해 추격의 속도가 늦춰지고, 독자들에게 불안과 조급함을 느끼게 한다. 사흘이 지난 후 정신을 차린 이 이집트인 소년은 자신의 주인

께 포함되었다(삼상 22:2). 다윗이 그일라를 벗어날 즈음 다윗의 부하는 600명 정도인 것으로 보도된다(삼상 23:13). 이들은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의 봉신이 될 때 함께 합류하였다(삼상 27:2). 니만(Hermann Michael Niemann)은 600명의 부하들 대부분 가드 출신이었을 것으로 묘사한다. 이는 사무엘하 15장 18절의 “모든 가드 군인 육백 명(all the six hundred Gittites)” 언급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짐작되지만, 이는 이야기 전체 흐름을 간과한 분석이다. Hermann Michael Niemann, “Neighbors and Foes, Rivals and Kin: Philistines, Shepheleans, Judeans between Geography and Economy, History and Theology,” *The Philistines and Other Sea Peoples in Text and Archaeology*, Ann E. Killebrew and Gunnar Lehmann(ed.), (Atlanta, G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3), 260.

이 아말렉인들이며, 그들이 바로 시글락을 약탈한 장본인임을 밝힌다. 이로서 처음엔 추격의 속도를 늦추는 방해물이자 짐처럼 인식되었던 이 소년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구원자로 변모된다. 다윗은 큰 기여를 한 그에게 보호를 보장한다. 더욱이 이 소년은 다윗의 윤리성을 검증하는 거울 이미지로서 기능한다. 아말렉은 병든 자를 버리는 비정함을 상징하는 반면, 다윗은 버려진 자를 거두는 **חסד**(헤세드)를 실천한다.¹¹ 그러므로 이러한 효율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다윗의 태도는 향후 벌어진 분배 논쟁에서 중요한 복선이 된다.

3) 절정: 서술 속도의 변화와 문제 해결(16-20절)

16절부터 20절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묘사하는 절정부이다. 절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장면은 매우 빠르게 요약적으로 제시된다. 앞서 이집트인 소년을 돌보는 장면이 매우 느리게 서술(지연)된 것과 상반된다. 이는 서술자의 관심의 결과보다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호를 보장받은 이집트 소년은 이제 다윗과 그의 용병대를 아말렉인들이 모인 곳으로 끌고 간다. 아말렉인들은 유다와 블레셋에서 약탈한 물건을 가지고 승리의 축제를 벌이고 있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이틀간 그들을 공격하였으며, 400여 명의 도망자를 제외하고는 모두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¹² 서술자는 전리품의 목록을 구체적

11 사무엘상 30장에는 **חסד**(헤세드)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으나, 위기 속에서 다윗이 보여준 윤리적 선택은 그의 헤세드 성품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다윗은 개인적 우정의 차원(삼상 20:8, 14-15; 삼하 9:3)을 넘어, 정치적 경쟁자나 이방인에게도 헤세드를 확장하여 실천했다(삼하 2:5-6; 10:2). 유라이어 김(Uriah Y. Kim)은 이러한 다윗의 헤세드 정신을 한국의 '정(情)' 개념과 유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Uriah Y. Kim, *Identity and Loyalty in the David Story: A Postcolonial Reading*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8). 결과적으로 다윗의 일관된 헤세드 실천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귀결된다(삼하 7:15; 22:51).

12 본문에 묘사된 다윗 용병대의 아말렉인 토벌전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수행한 그것과 다른 성격을 보인다. David Toshio Tsumura, *The First book of Samuel* (NICOT:

으로 나열하기 보다 이를 ‘다윗의 전리품(קְרָתוֹ לְדָוִד/헬랄 다윗)’으로 칭하며 잃은 가족과 재산을 온전히 되찾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를 통하여 이 전쟁의 목적이 약탈이 아닌 회복에 있음을 강조한다(19-20절).¹³

4) 위기: 내부 분열과 가치 재정립(21-25절)

21절부터 25절은 위기 부분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둔 뒤 내부 분열에 직면한 장면으로, 여기서 다윗과 일부 병사들 간의 대화와 논쟁이 부각된다. 이는 전투를 승리로 이끈 400명의 전방 병사들은 브올 시내 후방에 머물던 나머지 200명의 병사들과 합류하는 장면에서 발생한다(21절). 오랜만에 모두가 한 자리에 모였지만, 전쟁의 공훈을 놓고 새로운 위기가 발생한다. 전방에 투입되었던 일부 용병들이 전쟁의 공훈(능력)에 따라 취득한 전리품을 차등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후방 병사들은 공훈이 없으니, 그들은 되찾은 가족 외의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재산은 전방 병사들의 몫으로 다시 분배가 되어야 한다. 이들은 공동체 내부의 잠재된 탐욕을 표면화하고 있으며, 만연한 약탈 논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장면

Grand Rapids, MI: Eerdmans, 2007). 644.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야웨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인들을 **קָרַח** (헤렘)할 것을 명령한다. 하지만 아말렉 왕이나 지도자를 죽이고 이하 모든 것을 완전 파괴하는 전시 **קָרַח** (헤렘) 명령이 모든 전쟁 상황에 부과된 것은 아니다. 역대상 4장 41절 이후의 히스기야 시대 시므온 족속의 사레나 에스더서의 사례는 아말렉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지만, 이를 **קָרַח** (헤렘) 명령의 수행으로 묘사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13 하지만 다윗과 그의 용병대는 시글락 주변 내깍 광야에 거주하는 아말렉인, 그술인, 기르스인들을 습격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였으며, 아기스에게는 유다 남부에서 그리한 것으로 거짓 보고하였다. 이러한 거짓 보고가 탄로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약탈지의 그 어느 누구도 살려두지 않았다(삼상 27:8-11). 이러한 약탈 행위는 경제적 이득과 함께 유다 지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만, 서술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윤리적, 종교적 설명을 부여하지 않는다. John Van Seters, "David: Messianic King or Mercenary Ruler?," *Community Identity in Judean Historiography: Bibl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Gary N. Knoppers and Kenneth A. Ristau (ed.),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9), 34.

에서 다윗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본문의 서술자는 처음부터 이들을 가리켜 **רָע וְבִלְעֵל** (콜-이쉬-라아 우블리야알)이라 지칭하며, 그들의 의도가 악하고 부도덕하며 그들의 주장이 가치 없는 것임을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22절). 서술자가 독자들에게 예고한 바와 같이, 이들의 주장은 다윗에 의해 일언지하에 거절된다. 다윗은 오히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는 전방이나 후방인원이 아닌, 그 배후에서 보호의 손길로 함께 하신 야웨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23절). 이를 통해 공동체가 야웨 신앙이라는 공동의 가치에 바탕함을 분명히 확인하며, 모두가 동일하게(**יְהוָה יְחַלְקֵנוּ**/야호다 우 야할로쿠) 몫을 나누는 공정 원칙을 제시한다(24절). 서술자에 따르면, 이 원칙은 훗날 다윗 왕조 시대의 율례와 규례(**מִשְׁפָּט וְחֻק**/르호크 우르 미슈파트)가 되었다(25절; 참고: 출 15:25; 수 24:25).

5) 결말: 지역 분배를 통한 입지 도모(26-31절)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1절까지는 결말 부분으로, 원칙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장면으로 이야기의 에필로그에 해당한다. 다윗은 아말렉으로부터 탈취한 전리품 중 일부를 유다 지역 장로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며, 이를 통해 다윗은 장차 미래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다진다.¹⁴

이처럼 사무엘상 30장을 분석해 보면,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가 독자와 등장인물 간의 인식 격차 및 서술 속도를 조절하여 윤리적 딜레마와 그 해결 과정을 전략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위기 국면인 전리품 분배 논쟁과 그 결과를 부각하는 효과를 낳

14 알터(Robert Alter)는 이것이 다윗이 유다 지역 지도자들과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행위였다고 분석한다. Robert Alter, *The David Story: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of 1 and 2 Samuel* (New York, NY: W.W. Norton, 1999), 188.

는다. 나아가 본문의 독자가 구약의 전리품 분배 관습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구약 성경 전반에 나타난 전리품 취득의 원칙과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탐구해 보고자 한다.

3. 전쟁의 목적과 과정에 따른 전리품 취득 가능 여부

구약성서에서 전리품 취득 가능 여부는 전쟁의 목적과 과정에 따라 그 허용 여부와 범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חָרָם**(헤렘) 명령에 따른 윤리적, 종교적 목적이 뚜렷하게 반영된 전쟁의 경우, 전리품은 취득이 아닌 제거의 대상으로 묘사된다. 예를 들면, 우상을 숭배하고 배교를 권하는 성읍들이나(신 13:12-18), 또한 그런 위협을 잠재적으로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가나안인들의 성읍들이 그러하다(신 20:16-18). 반면 그런 목적과 무관한 일반적인 전쟁의 경우, 통상적인 전쟁 규칙에 따라 전리품 취득을 허용한다(신 20:10-15). 그러므로 전리품 취득은 윤리적, 종교적 목적의 유무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전리품 분배 원칙에 집중되므로, **חָרָם**(헤렘) 명령의 윤리적 난제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는다.

1) 전리품 취득 전면 금지

먼저, 전쟁이 특정한 윤리적, 종교적 명분에 결부되어 수행되는 경우, 전리품 취득이 전면 금지된다. 이러한 전쟁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타민족들을 타도, 멸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대 측 모든 지도자와 군인, 주민들 그리고 그들의 재산들(가축, 가축, 물건)은 모두 신에게 ‘온전히 바쳐진 것(**חָרָם**)’으로 간주되어, 전후 처리 과정에서 취득의 대

상이 아닌 제거의 대상으로 이해된다.¹⁵ 이러한 이유로, 전시 상황에서 **הָרָק**(헤렘) 명사가 사용될 경우, 이는 ‘파괴를 위해 바쳐진 것(something devoted to destruction)’이란 의미가 규정된다. 동사적으로는 ‘완전히 파괴하다(utterly destroyed)’라는 의미를 갖는다(출 22:20; 민 21:2-3; 신 7:1-2, 23-26; 13:15-18; 20:17; 수 6:21).¹⁶

여호수아서 6장의 여리고 전투는 상대측 주민과 재산에 대한 파괴와 멸절의 의미로서 **הָרָק**(헤렘) 전쟁, 즉 전리품 취득 금지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수행하려 한 거의 유일한 사례라 할 수 있다.¹⁷ 이는 가나안 땅 입성 후 처음 수행된 전투로, 모든 과정이 신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이는 함성으로 벽을 무너뜨린 뒤, 성 안으로 진격하여 왕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 및 가축을 칼로 전멸시킨 전투였다(수 6:21). 여리고 성 안 모든 유무형의 재산들 역시 신에게 바쳐진 것으로 간주

15 종교의례적 상황에서 히브리어 단어 **הָרָק**(헤렘)은 명사적 용법으로 신에게 바쳐진 것(something devoted to God)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사람이나 가축, 물론 물건이나 전답 등이 포함된다(레27:28, 민18:14; 겔44:29). 거룩하게 바쳐진 것들은 다시 무를 수 없고, 만약 무르코자 할 경우 반드시 파괴해야 한다(레27:29). **הָרָק**(헤렘)에 대한 다양한 의미와 용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Philip D. Stern, *The Biblical Herem: A Window in Israel's Religious Experience* (Atlanta, GA: Scholars Press, 1991); 김동혁, “헤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구약논단」 27권 3호(2021), 131-154. 곽건용, 「정말 아뢰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서울: 꽃자리, 2023), 154-181.

16 **הָרָק**(헤렘)을 파괴와 제거의 의미로 묘사되는 성서 속 전쟁에 대해, 현대 일반 독자의 관점에서 부정적 인식을 표하는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면, 신무신론을 대표하는 히친스(Christopher Hitchens)나 도킨스(Richard Dawkins) 등이다. 이 이야는 이러한 현황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심판과 구원이라는 신학적 관점에서 윤리적 재평가를 시도한다. 이 이야, “윤리적 책으로 구약 읽기를 위한 한 모색: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헤렘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55호(2023), 237-264. 강규성이나 김기호도 비슷한 관점에서 재평가를 시도한다. 강규성, “헤렘 전쟁기사는 과연 진멸만을 말하는가?: 가나안 정복 기사(수 5-11장)를 중심으로,” 「성경과신학」 89권(2019), 1-25. 김기호, 「God's Lawyer 오해와 이해」(과주: 동명사, 2017), 103-145. 윌튼 부자는 **הָרָק**(헤렘)을 물리적 제거보다 정체성의 제거(destroying identity)로 이해하고자 한다. John H. Walton and J. Harvey Walton, *The Lost World of the Israelite Conquest: Covenant, Retribution, and the Fate of the Canaanites*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17), 205-211 (e-book).

17 김희권, 「인문고전으로서의 구약성서 읽기」(서울: 박영사, 2021), 730.

되었으므로, 성 안의 모든 것은 파괴와 제거의 대상으로 이해되었다(수 6:18, 21, 24). 스파이 역할을 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예외였다(수 6:2, 22-23). 하지만 아간이 이 전투 이후 חָרָם(헤렘)으로 구별된 물건들을 שָׁלַף(샬랄)로 사적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며, 사실상 전리품 취득 금지 명령에 따른 온전한 파괴가 완벽히 수행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수 7:1, 11-15, 21; 22:20).¹⁸

2) 전리품 취득 부분 허용

전시 חָרָם(헤렘) 명령이 실제로 수행되었음에도, 전리품 취득이 부분적으로 허용된 사례도 존재한다. 여호수아서 8장과 10-11장의 경우, 신에게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의미의 명사 חָרָם(헤렘)이 생략되고,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적 표현이 반복되어 등장한다(수 8:26; 10:1, 28, 35, 37, 39-40; 11:11-12, 20), 여호수아서 8장의 제2차 아이 전투를 살펴보자. 여리고 전투와 달리 제2차 아이 전투에서는 지도자와 병사들, 주민들의 제거만 언급되고, 그들의 재산은 전리품으로 취득해도 된다는 부분적으로 변경된 명령이 주어진다(수 8:1-2). 변경된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이 성의 왕을 비롯한 주민들을 모두 처단하고(수 8:21-26, 29), 가축과 물품 등을 전리품으로 취득하게 된다. 이 때 전리품을 지칭하는 명사 שָׁלַף(샬랄)이 사용된다. 이 단어는 7장 21절에서 아간이 חָרָם(헤렘)으로 구별된 물건을 שָׁלַף(샬랄)로 취했다고 묘사할 때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이 단어의 동사적 형태는 외부의 침입자를 주어로 사용하는 칼 동사의 형태로, ‘노략하다(to plunder, to spoil, to capture)’

18 반면 방기민은 여호수아서 6장 2절의 “내가 …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אֶתְּחַבֵּן לְיָדְךָ / 나타타 브야드카”라는 표현이 전리품의 획득과 관련된다고 보고, 여리고 전투에서의 חָרָם(헤렘)은 여호수아의 자의적 판단으로 지지를 실수라고 본다. 방기민, “회복의 임기를 통한 여호수아 헤렘 본문의 윤리적 해석,” 「구약논단」 27권 1호 (2021), 76-77, 85-90.

는 의미로 예언문학에서 주로 등장한다(렘 50:10; 겔 26:12; 합 2:8).

이러한 전리품 취득의 부분 허용 사례는 여호수아서 10-11장에도 등장한다. 각 도시들의 모든 주민들을 전멸했다는 보도만 등장할 뿐, 주민들의 재산(가축, 물건) 파괴는 언급되지 않는다. 11장 14절은 좀 더 구체적이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솔 왕과 모든 주민들을 처단하고 성을 불사르기까지 하지만 주민들의 재산인 가축과 물건들을 전리품, 즉 **לְבָרָה**(살랄)로 취득했다고 보도한다. 유사한 사례가 신명기 3장의 요단 동편 전투 장면에서 이미 등장하는데, 7절에 따르면 당시 군인들은 왕과 주민들을 모두 처단했으나, 이후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물건은 전리품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전리품 전면 취득 금지 명령 불복 사례

여호수아서 6장의 전쟁이 전리품 취득 금지 규정을 가능한 철저히 이행하고자 노력했던 사례라면, 사무엘상 15장의 아말렉 전투는 이러한 명령이 부과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례이다. 이 전투는 윤리적, 종교적 명분에 의거하여 아말렉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출애굽기 17장의 집단기억을 근거로 한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따르면, 아말렉은 출애굽 백성들의 길을 방해하고 공격하였다. 신명기 25장 18절은 아말렉이 출애굽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공격했고,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고 묘사함으로써, 당시 아말렉의 공격이 단순히 우발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묘사한다.¹⁹

19 그러나 출애굽기 17장은 아말렉인들이 출애굽 백성들을 공격한 이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 김진수는 시편 83편에 근거하여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던 적대감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진수, “하나님 백성의 적, ‘아말렉,’” 「신학정론」 34권 1호 (2016), 230-234. 하지만 저자도 언급하였듯이, 시편 83편은 아말렉을 포함한 다양한 적대 세력을 포괄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특정 역사적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논리적 비약의 여지가 있다.

출애굽기 17장 9절 이하에 묘사되는 아말렉의 출애굽 백성들에 대한 공격은 자신들의 영역에 진입한 세력을 견제함과 동시에, 유목민 특유의 약탈경제 행위의 연장선이었다.²⁰ 그러나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은 이제 막 광야에 진입한 출애굽 백성을 시작부터 극단의 위기로 몰고 간 사건이었다. 더욱이 아말렉인들은 통상적인 전쟁의 규칙과 순서를 따르지 않았다. 신명기 20장 10-20절에 따르면, 전쟁을 수행할 때는 먼저 상대방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항복을 권해야 하며, 다음으로 항복 여부에 따라 전쟁 여부가 결정된다. 산헤립의 앓시리아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도, 랍사게를 통해 항복을 종용했다(왕하 18장, 사 36장). 하지만 출애굽 백성을 공격한 아말렉군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항복의 기회를 주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병사뿐 아니라 민간 약자들까지도 공격과 살육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비록 유목민이었던 아말렉이 자신들의 안보와 생존을 위해 상대방을 공격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의 안전을 극단적으로 위협한 그들의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잔인하고 비윤리적 행위였다. 이러한 극단적 위기 경험이 집단기억에 깊이 새겨진 이스라엘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아말렉은 멸절되어야 할 대적이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7장 14절은 **מָחָה**(마하) 동사를 사용하여, 이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묘사한다(**מָחָה אֶת-מִצְרַיִם**/키-마호 에 메헤).²¹ 이를 가리켜 신께 온전히 바친 것 혹은 온전한 제거의 대상으로서의 명사 **מְחָה**(헤멩)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반면, 사무엘상 15장은 아말렉을 제거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데 출애굽기 17장에 사용된 **מָחָה**(마

20 Kenton L. Sparks, "Israel and the Nomads of Ancient Palestine", *Community Identity in Judean Historiography: Bibl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Gary N. Knoppers and Kenneth A. Ristau(ed.),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9), 10, 20.

21 창세기 6장 7절도 마찬가지이다.

하)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동사적 형태로서의 **הָרַחַם**(하람)을 사용한다(삼상 15:3, 8-9, 15, 18, 20). 결정적으로 21절에서 사울 왕은 명사 **הֶרֶם**(헤렘)으로 구별된 것들 중 가장 좋은 것을 명사 **שָׁלַל**(살랄)로 삼았다고 언급한다. 이는 사울 왕에게 부과된 아말렉에 대한 전쟁이 전시 **הֶרֶם**(헤렘) 명령에 따른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무엘상 15장의 야웨는 아말렉을 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과 그의 군대에게 아각 왕을 비롯한 남녀노소, 가축과 모든 물건들을 진멸할 것을 명한다(삼상 15:2-3).²² 이에 따라 사울의 군대는 아말렉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전리품을 취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해야 했다. 실제로 전쟁 중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말렉 거주민들을 모두 몰살하였으나, 아각 왕을 포로로 잡고 품질 좋은 가축들을 **שָׁלַל**(살랄), 즉 전리품으로 취했다(삼상 15:8-9, 14-15). 물론 이러한 사울의 결정에는 여러 복합적인 정치적, 경제적 목적이 있었을 것이지만, 이미 주어진 **הֶרֶם**(헤렘) 명령의 목적에 불복하는 처사였다.²³

4) 전리품 분배의 원칙과 방법

הֶרֶם(헤렘) 명령과 같은 특정한 윤리적, 종교적 목적과 무관한 전쟁의 경우엔 전리품을 취하고, 각자의 몫을 분배할 수 있었다. 신명기 20장 10절 이하는 통상적인 전쟁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쟁을 치

22 왕 아각의 이름은 에스더서에서 아말렉인의 후손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쓰인다. 아각인 하만은 대표적인 반유대주의적 인물로 묘사된다(에 3:1, 10; 8:3). Mark J. Fretz, "Agagite,"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I, 89-90.

23 왕을 포로로 잡아 곁에 뚫어서 반란을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자신의 우월적 권위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했을 것으로 보인다. 좋은 전리품을 취한 것 역시, 종교적 의례를 위한 제물 준비(삼상 15:21)나 참전 군인들을 위한 경제적 재분배(삼상 15:24) 등을 목적으로 했을 것이다.

를 것을 규정한다. 먼저 상대방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항복을 권유하며, 항복 유무에 따라 전쟁 여부를 결정한다(신 20:10). 만약 항복한다면, 그 성의 백성들을 살려주고 노예로 삼는다(신 20:11) 만약 항복하지 않는다면, 전투를 통해 정복하고, 모든 성인 남성 병사들은 처단한다(신 20:12-13). 전쟁 이후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여성, 어린이)과 모든 물건, 가축은 전리품으로 취득 가능하다(신 20:13-14).

창세기 14장은 족장 중심 사회에서 이뤄진 전리품 분배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용병을 고용한 족장이 전후 승리의 몫을 분배해주는 장면이 담겨있다. 본문에 묘사되는 싯딤 전쟁은 사해 인근 소국들이 메소포타미아와의 약 12년간 유지한 중주권 조약을 파기한 것을 원인으로 한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연합군이 사해 지역까지 원정을 와 승리를 거두고, 재산을 약탈하고 거주민을 납치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끼친다(창 14:1-12). 외부 병력의 사해 연합군 지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뤄진다. 아브람은 그의 사병 318명과 그와 동맹한 아모리인 족장들(마므레, 에스골, 아넬 삼형제)을 거느리고 북부 길을 통해 귀향 중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추격하였다. 물론 납치된 조카 롯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일차적 목적으로 묘사되지만, 결과적으로 사해 연합군이 빼앗겼던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다시 되찾는다(창 14:13-17). 이후 전리품 분배의 주도권은 사해 연합군 왕들보다 용병대 대장인 아브람이 가졌으며, 아브람은 이를 신적 권위에 근거하여 수행한다. 먼저 아브람은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자발적으로 헌납하였다(창 14:20). 다음으로 소돔 왕은 사람만 돌려받고, 되찾은 재산을 모두 아브람에게 넘길 것을 제안하지만 아브람은 그 제안을 거절한다(창 14:21), 대신 아브람은 자신의 몫을 제외한 사병들과 족장들의 몫(פְּלִיטָה/헬레크)만 따로 떼기로 한다(창 14:24). 이렇듯 싯딤 전쟁은 정규군이 아닌 외부 병력이 용병처럼 추가 참전하여 승리를 거둔 전쟁으로, 용병에 대한 전

리품 분배의 사례를 보여준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전리품이 어떤 원칙에 따라 분배되었는지는 자세히 묘사되지 않는다.²⁴

민수기 31장은 전리품의 취득과 분배에 대한 원칙을 보다 더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분배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제사장계 문헌 전통에 놓여 있다 할 수 있다. 본문에 묘사된 미디안 전투는 창세기 14장의 경우와 달리 외부 병력의 지원 없이 정규군이 수행한 전투라는 특징이 있다. 시므온지파 지도자의 아들이 미디안인 족장의 딸과 관계한 브올 사건의 여파와 이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벌어졌다(민 25:14-18). 이 전투는 열두 지파 각 천명의 병사씩 차출한 전면전으로, 미디안의 왕들과 남성들을 모두 처단하고 성읍을 불태웠으며(민 31:7-8, 10), 포로로 잡힌 여성 중 남자를 아는 여성들, 그리고 사내아이들까지도 처단하였다(민 31:17). 하지만 모든 것의 절멸을 의미하진 않았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와 여아들은 포로로(אֲתֵּי־הַשְּׁבִי/엣-핫세비), 가축과 물건은 전리품(אֲתֵּי־הַמְּלִקָּה/웨엣 함말코아호 웨엣-핫살랄)으로 취득하였으며(민 31:11-12), 불에 지나가게 하고 물에 씻기는 등의 일종의 정화의식을 거쳐 분배되었다(민 31:18-23). 본문의 흥미로운 점은 취득한 전리품에 대한 분배 원칙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는 점이다. 먼저, 군인과 회중에게 각각 절반씩 분배한다(민 31:27). 다음으로 군인의 몫 중 1/500은 제사장에게(민 31:29), 회중의 몫 중 1/50은 레위인에게 분배한다(민 31:30). 마지막으로, 금붙이를 포함한 귀중품은 자율적으로 헌납하여 야웨의 것으로 구별한다(민 31:50-54). 창세기 14장은 제사장의 몫을 먼저 떼고 그 뒤에 군인의 몫을 뺀다면,

24 울프(Herbert M. Wolf)는 사무엘상 30장에 나타난 다윗의 전리품 회복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본다. Herbert M. Wolf, *Commentary on 1-2 Samuel*, Robert D. Holmstedt (rev.),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12), 64 (ebook).

민수기 31장은 군인과 회중의 몫을 먼저 떼고 그 뒤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떼다. 전자는 자발적인 특성을 갖는다면, 후자는 그렇지 않다. 그룹별 할당 몫은 제시되어 있으나, 그룹 내 분배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지 언급되지 않는 부분은 한계이다.²⁵ 그러나 본문은 제사장 중심 계급 사회에서 제시된 분배 원칙의 일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위 두 사례에서 보듯이 전리품 분배가 가능한 전쟁의 경우, 모두 외부로부터 자신들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창세기 14장은 족장 중심 사회의 특징을 담고 있다면, 민수기 31장의 제사장 중심 사회의 특징을 담고 있다. 전자는 고용한 용병들에 대한 보상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계급에 따른 차등을 강조한다. 이와 달리 사무엘상 30장은 왕정 형성기의 분배 원칙을 엿볼 수 있으며, 25절에 언급된 다윗의 원칙은 앞선 사례와 다른 제3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는 현대의 분배 정의론에 조명하여 논의가 가능하다.

4. 다윗의 분배 원칙을 조명하는 현대 정의론의 세 가지 관점

사무엘상 30장의 전리품 분배 논쟁을 오늘날의 분배 정의 담론으로 분석할 수 있다. 사무엘상 30장은 공정한 분배를 강조하는 다윗의 입장과 전후 분배에 있어 차등을 요구하는 일부 병사 간에 논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분배적 정의에 관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며,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부터 공동체의 목적과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까지 다양하다. 현대 사회의 분배 정의 담

25 미스칼(Peter D. Miscall)은 본문과 민수기 31장 간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한다. Peter D. Miscall, *1 Samuel: A Literary Reading*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6), 178.

론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최우선시하는 입장, 둘째는 사회적 합의와 공정성을 통한 재분배를 중시하는 입장, 셋째는 공동체의 목적과 미덕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 존 롤스(John Rawls),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은 이 세 가지 입장을 각각 대변하며 현대 정의론에 굽직한 족적을 남겼다. 노직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롤스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과 같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구성원이 합의한 정의의 원칙(특히 차등의 원칙)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다. 이 두 학자는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 특정한 목적보다는 올바른 절차와 권리를 우선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적 정의를 비판하며 공동체의 가치와 목적을 우위에 두는 입장도 존재한다. 마이클 샌델이 대표적이며, 그는 인간을 공동체와 분리된 존재가 아닌 '연고성을 지닌 자아'로 규정하고, 공동선(common good)과 시민적 미덕의 실천을 정의의 핵심으로 본다. 이러한 세 학자의 입장들은 사무엘상 30장에 나타는 분배 정의 논쟁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1) 소유권적 정의와 전방 병사들의 논리

노직은 자신의 저작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연적 과정을 강조하며 소유권적 정의 개념을 제시한다. 그는 롤스의 절차적 정의 개념을 비판하며 개인의 소유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한다.²⁶ 존 로크(John Locke)는 자연 상태의 개인이 노동을 통한 결과물의 취득을 인정하면서, “타인을 위한 공유물이 충분하

26 노직의 롤스 비판은 다음을 참고하라.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3), 231-289. 원제는 Robert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Blackwell: Malden, MA, 1974).

게 양질의 것으로(enough and as good) 남아 있는 한”이라는 충분성과 양질성이라는 단서 하에 가능하다고 보았다.²⁷ 노직은 이러한 로크적 단서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이라는 로크의 충분성 원리를 약화시킴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옹호한다.²⁸ 이를 토대로 그는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를 자유로운 교환과 증여를 통해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만약 그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그는 시장원리를 강조하는데,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개념을 사회와 국가 형성 과정에 적용하여 설명한다.²⁹ 자연 상태의 인간은 각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소유권을 지켜야 하므로, 자발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보호를 맡아줄 사적보호협회(private protective associations)를 구성하며, 이는 서서히 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국가(minimal state)의 형태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즉, 노직의 관점에서 사회와 국가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와 그에 따른 규칙을 강조하는 계약론적 관점에 거리를 둔다. 그러므로 노직에게 있어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소유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최선이며, 그렇지 않고 세금과 같은 어떤 공적인 수단을 통해 부를 재분배하는 국가의 형태는 강제적

27 여기서서는 권경희의 번역을 따른다. 권경희, 「로크의 재산권 이론」, 『법철학연구』 18권 3호 (2015), 196. 구영모도 유사하게 “충분한 양의 그리고 똑같이 좋은 질들의 것들”로 번역한다. 구영모, “Nozick의 소유권리론에 관하여,” 『철학연구』 23집 (1995), 173. 강정인과 문지영의 번역은 “충분히 남아있는 한”으로 번역한다. 존 로크, 「통치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강정인, 문지영 옮김), (서울: 까치글방, 2022), 38. 원제는 John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1689).

28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220-230.

29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은 개인의 이기적인 사익 추구 행동이 사회 전체의 공적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개념이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 여러 국가의 국부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탐구」, 김수행 옮김 (서울: 비봉출판사, 2007), 552-553. 원제는 Adam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

이며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았다.

사무엘상 30장 이야기에서 전방에 투입되었던 병사들의 주장은 노직의 입장을 닮아있다. 그들은 전쟁의 실질적 승리와 영광이 무엇보다 치열한 사지(死地)에 뛰어들어 자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³⁰ 전쟁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소유권을 담보로 하는 행위이므로, 살아남은 병사들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은 그 위험 감수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배타적 권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후방에 남은 병사들의 존재는 전방 병사들의 공훈을 역설적으로 더욱 부각시킨다. 후방 병사들과 달리, 전방 병사들은 적군과 실제로 싸워 이겼으며 아군의 잃어버린 소유를 직접 ‘노동(전투)’하여 되찾았기 때문이다. 본문이 전리품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으나, 문맥상 여기에는 되찾은 아군의 재산과 가족뿐 아니라 아말렉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약탈해 온 ‘추가적인 전리품(잉여 이익)’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노직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에게 전리품의 독점적 소유는 노동과 위험 감수에 따른 정당한 절차적 결과이다. 만약 노직의 논리를 따른다면, 다윗은 노동과 소유의 연관성을 인정한 창세기 14장의 사례를 준용하여 실제 전쟁에 참여한 전방 병사들에게만 그들의 정당한 몫을 배분했어야 한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이러한 능력주의적 입장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견 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2)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다윗의 고려

롤스는 자신의 저작 「정의론」를 통하여,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

30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당시 일반적인 군사 관습에 따라, 실제로 전투에 참여한 자들이 전리품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Walter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IBC; Louisville, KY: John Knox Press, 1990), 204. 김정훈은 이러한 일부 전방 병사들의 주장은 일견 논리적이라고 평한다. 김정훈, 「사무엘서: 한계를 가진 인간과 무한한 하나님의 일하심」 (서울: 감은사, 2024), 526.

인들이 체결한 사회적 계약과 이로 인해 성립된 절차적 정의를 강조한다. 다시 말해, 롤스의 정의론은 계약론적이면서 동시에 의무론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그는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라는 순수한 가상적 상태를 제시한다. 이는 대표성을 지닌 각 개인들이 서로 간 사회적 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각자가 지닌 특정한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상호 동등한 관계 속에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최초의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에서 계약체결 당사자들은 자신의 천부적 재능(능력, 지능, 체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계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데, 롤스 이를 가리켜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상태라고 묘사한다.³¹ 이처럼 각 개인들이 자신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 놓이면, 스스로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없으므로 사회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정의의 두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고 보았다.³² 첫 번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이는 각자가 자신의 기본적(정치적) 권리에 대해 동등한 보장을 받으며 자유를 누리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다. 이는 현실의 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소 수혜를 입게 되는 자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불평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³³ 그러므

31 존 롤스, 「정의론」(황경식 옮김), (서울: 이학사, 2003), 45-58. 원제는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존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에린 켈리 편집, 김주희 옮김), (서울: 이학사, 2016), 42-49. 원제는 John Rawls,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Erin Kelly (ed.)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참고로 이는 로크의 백지(tabula rasa) 개념과 다르다. 롤스의 개념이 인간 본성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이라면, 롤스의 무지의 베일은 계약론적인 가정이다.

32 이 합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the greatest happiness for the greatest number)이라는 공리주의적 원칙에 근거하지 않는다. 롤스, 윗글 (2003), 450.

33 각 원칙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롤스는 자유의 우선성(priority of liberty) 원리에 따라,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은 각각 순차적으로 그 뒤를 따른다. 이를 가리켜 롤스는 축차적 서열(lexical order)라고 지칭한다. 롤스, 윗글 (2003), 105-140, 329, 396-401, 692-700.; 롤스, 윗글

로 롤스는 현재의 성취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 이상의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실 속 개인에게는 단지 실력의 요소뿐 아니라,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운(fortune), 즉 주어진 환경에 따른 임의적 요소가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임의적 요소가 배제된 공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차등(불평등)만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각자에게 임의로 주어진 능력과 환경에 따른 차등은 부정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임의성을 완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개인의 실력과 운의 분포/분배(the distribution of native endowments)는 사회적 공동 자산(common asset)으로 간주되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돌려주어야 한다.³⁴ 롤스는 자유와 평등 개념을 조화시키며, 현실의 불평등을 공정하게 보완하기 위한 정의 원칙을 제시하려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개념이다.³⁵

사무엘상 30장 이야기에서 다윗의 용병대가 ‘무지의 베일’ 뒤에서 분배 원칙에 합의했다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다윗이 제시하는 분배 원칙은 최소 수혜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롤스의 정의관과 맞닿아 있다. 물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터에 뛰어든 전방 병사들의 공훈은 매우 귀하다. 전체 인원 삼분의 일의 병사들이 브

(2016), 88-99.

34 롤스, 윗글 (2003), 151-160.; 롤스, 윗글 (2016), 139-142.

35 후기 롤스는 자신에 대한 여러 비판을 일부 수용한다. 초기에 제시한 원초적 상태 개념은 어디까지나 비역사적인 조건과 상황을 전제하는 사고 실험적 장치일 뿐, 현실에서는 이러한 순수한 절차적 정의(pure procedural justice)가 확인될 수 없다고 강변한다. 더 나아가, 현실 사회 속 서로 다른 관점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는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이러한 합의에는 공적 이성(public reason)이 기능해야 하며 그 중심에 ‘공정으로서의 정의’ 개념이 자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존 롤스, 「정치적 자유주의: 증보판」 (장동진 옮김), (과주: 동명사, 2016), 286-296, 345-365, 421-439. 원제는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Expanded Edition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서요련, “롤스의 정치적 전환과 원초적 입장 개념의 변천,” 「철학사상」 92호 (2024), 37-70.

솔 시내에서 체력 고갈로 후방에 남게 되었지만, 이것이 그들의 생존권이나 기본적 소유에 대한 권리 박탈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9-10절에서 분명 이들은 피로감으로 인하여 중도에 멈춰야 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은 브솔 시내에 남아서 병사들의 소유물을 끝까지 잘 지켰던 것이며(삼상 30:24), 더욱이 승전보를 들고 돌아오는 다윗과 400명의 병사들을 반갑게 환대하였다(삼상 30:21). 이로 인해 다윗은 후방 병사들 역시 나름의 공로가 있으므로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24절). 이는 사회적 불운(체력 고갈, 피로 누적, 환경 부적응 등)을 겪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롤스는 불평등이 약자에게 이익이 될 때 이를 허용하는 '차등의 원칙'을 제시했지만, 다윗은 공동체 모두에게 '산술적 동등 분배'를 명령했다는 점이다. 이는 롤스의 원칙을 넘어서는 급진적 개념이다. 따라서 다윗은 전방과 후방의 병사 모두가 동일하게(אֵלֵינוּ יָחַד/야흐다우 야할로쿠) 몫을 가져가야 한다고 선언한다. 다윗은 이러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이전의 관습적 사례들(창세기 14장, 민수기 31장)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창세기 14장의 분배가 상호 계약에 기초한 것이었고, 민수기 31장의 원칙이 제사장과 군인, 회중 간의 몫을 엄격히 구분했던 제사장 중심 계급 사회의 산물이었던 것과 대조된다. 따라서 25절에서 다윗이 정한 규례는 역할과 계급의 차이를 초월하여, 아웨 신앙 안에서 구성원 모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급진적 평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전승사적 독창성을 갖는다.

3) 공동체적 정의와 아웨 신앙을 통한 연대

이와 달리 공동의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연대적 정의를 강조하는 관점도 있다. 이는 개인은 사회적 존재로 보고, 정의를 특정 공동체가 공유하는 역사와 전통, 도덕적 가치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보는 입

장이다. 이들은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특수성의 맥락을 배제함으로 공동의 선(善) 관념이나 가치 기준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의 주관적 선택과 국가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롤스의 입장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³⁶ 샌델은 롤스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비판한 대표적 학자이다. 그는 롤스의 인간관, 즉 무지의 장막에 가려진 개인이 목적보다 자아가 앞서는 선행적 특성을 지녔다고 지적한다.³⁷ 이어 그는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나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그런 개인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본다. 오히려 인간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서의 전통과 가치에 따라 자신의 관계와 정체성을 형성하므로, 목적에 선행하는 자아가 아니라 인간은 무연고적 존재가 아니라 연고적 존재(situated self)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⁸ 샌델은 롤스의 이러한 인간관이 의무론적 관념에 근거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롤스가 좋음(good)보다 옳음(right)을 더욱 중요하게 여김으로, 좋음을 단지 우연의 산물로, 다시 말해 “무차별적인 소망과 욕망의 산물로 좌천”시켰다고 보았다.³⁹ 하지만 샌델의 관점에서 옳음은 좋음과 분리될 수 없으며, 개인 역시 공동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정의는 각 공동체의 맥락에서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선의 가치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샌델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히 나누는 절차적 정의보다 공동체적 연대를 중시하는 정

36 스테판 멀홀, 애덤 스윙프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김해성, 조영달 옮김),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40-67. 원제는 Stephen Mulhall and Adam Swift, *Liberals and Communitarians* (Oxford, UK: Wiley-Blackwell, 1996). 김은혜,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윤리문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312-314. 김혜령은 롤스의 원칙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 해도, “현실 인간의 이기심을 완전히 무마할 수 없다”고 평한다. 김혜령, 「기독교시민교양을 위한 나눔 윤리학」 (서울: 잉클링즈, 2022), 54.

37 마이클 샌델, 「정의의 한계」 (홍성민 옮김) (고양: 멜론, 2012), 94-107. 원제는 Michael J.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Second Edition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38 샌델, 윗글 (2012), 359-365.

39 샌델, 윗글 (2012), 334-347.

의에 더욱 관심한다.⁴⁰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에서 다윗과 그의 용병대가 지향해야 했던 공동선의 가치는 ‘야웨 신앙’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결속이다. 비록 용병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나, 다윗에 대한 충성과 그가 믿는 신을 따름으로써 하나의 서사(narrative)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샌델의 관점에서 볼 때, 전방 병사들의 주장은 ‘내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능력주의적 오만에 빠진 상태다. 이에 대해 다윗은 23절에서 승리의 원동력이 개인의 공로가 아닌 야웨의 보호하심에 있음을 그러므로 모든 전리품은 ‘야웨께서 선물로 준 것(לַיהוָה אֱלֹהֵינוּ אֵשֶׁת־נָחַשׁ אֲדֹנָי רָנָה)’임을 천명한다. 이를 통하여 최초 취득의 소유 원리는 기각되며, 개인의 자격보다 공동의 목적을 앞세운다. 야웨 신앙은 이후 다윗 왕조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으며(삼하 7장), 다윗의 원칙은 개인의 권리를 넘어 공동선(common good)과 시민적 미덕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다윗은 차등을 넘어 동등한 분배를 원칙으로 제시하게 된다.

4) 소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윗이 제시하는 정의 개념이 일부 병사들의 정의 개념과 서로 배치됨을 파악할 수 있다.⁴¹ 일부 병사들은 개인

40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김명철 옮김), (서울: 와이즈베리, 2014:), 379-390. 원제는 Michael J. Sandel,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New York, NY: Farrar, Straus and Giroux, 2009)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황규진 옮김), (서울: 와이즈베리, 2020), 345-355. 원제는 Michael J. Sandel,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New York, NY: Farrar, Straus and Giroux, 2020). 김광연은 샌델의 연고성 이론을 레비나스의 타자 이론과 연결하여 논증한다. 김광연, “공동체에서의 도덕적 자아와 타자의 얼굴,” 「기독교사회윤리」 44호 (2019), 183-195.

41 브루그만은 다윗의 결정이 균을 소외시킬 수 있는 정치적 위험과 논란을 내포함에도, 미래의 지도자로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to dispense justice) 결단이었다고 분석한다. Brueggemann, 윗글, 204. 포겔만도 이러한 다윗의 결정이 부하들의 눈치를 보았던 사무

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반면 다윗이 제시하는 분배 정의는 공정에 기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실전에 투입된 인원들만이 승리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후방 지원 역할을 맡은 인원들 역시 기여와 공로가 있다고 평가한다.⁴² 이러한 상반되는 입장을 평가하기 위해선, 당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용병대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직업적인 성격의 용병대라면, 전쟁은 경제생활의 일부로서 병사들은 창세기 14장의 경우처럼 전후 각자의 몫을 취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충분하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 실행에 앞서 먼저 신의 뜻을 물었으며(삼상 30:7-8), 전쟁을 마친 후에도 승리의 영광을 신에게 돌렸다(삼상 30:23). 이러한 다윗의 행동과 언어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적인 영역에서 공론화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다윗은 모두가 전투에 참여할 공정한 기회를 균등하게 얻었음에도 발생한 불균형의 문제를 각 개인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고, 공동의 책임 영역으로 승화시켰다. 이는 롤스가 각 개인의 재능이나 운을 공동의 자산으로 평가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롤스의 기회균등의 원칙을 확장하여 적용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차등 원칙을 넘어서서, 모두가 공평하게 동일한(אֲנִי וְאַחֵי אֲדָמָה) 분배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율법의 약자보호법을 넘어서는, 보다 더 급진적인 개념이라 평가할 수 있다.⁴³ 이 지점에서 다윗의 원칙은 절차적 정의를 넘어서서,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

열상 15장에 나타난 사울의 사례와 구별된다고 평한다. Fokkelman, 윗글 (1986), 591.

42 Alter, 윗글, 188.

43 김희권은 구약성서의 경제관은 인애와 자비의 정신에 근거하여 언약공동체의 안녕과 연대를 추구하고, 이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보호와 돌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희권, 「자비경제학: 구약성경과 하나님 나라 경제학」(서울: PCKBOOKS, 2022), 38-47.

다. 하지만 이는 산술적인 동등 분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윗의 원칙은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한 각 개인들의 맥락을 고려하고, 그에 따라 각자의 공로와 기여를 인정하는 공정과 공평의 분배 원칙이라 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윗의 분배 정의 원칙은 샌텔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공동체의 공동이념으로서 야웨 신앙에 바탕하고, 이에 따라 공공선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부합하는 원칙을 세우고자 한다.⁴⁴ 그러므로, 전쟁의 승리가 신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이뤄졌다는 다윗의 발언은, 개인의 노력을 폄훼하고 격하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연대와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⁵ 더욱이 모든 것이 야웨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이를 개인의 소유권보다 우선시 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윗은 소유권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넘어선 공동체의 상호 신뢰에 바탕한 **קָהָל**(קהל)의 정의를 구현하고자 했다.

5. 나가는 말

오늘날 한국 사회는 모두를 위한 분배 정의의 개념, 원칙, 정책을 세우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단지 담론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안에 반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시행과 실천 과정에서 제도적 공정성 논란을 낳았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제도에 대한 회의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좌절과 고립감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 속, 사무엘상 30장의 분배 정의 논쟁과 다윗의 원칙은

44 McCarter, 윗글, 436

45 포켈만은 연합을 위한 분배(a division which precisely denotes unity)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Fokkelman, 윗글 (1986), 591.

오늘의 현실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첫째, 분배 정의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을 정당화하는 것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둘째, 분배 정의는 단지 각 개인의 성과와 공로, 기여를 평가하는 절차적 공정성만으로 성립될 수 없다. 셋째, 분배 정의는 가치와 별도로 논의할 수 없으며, 공동체적 연대와 공동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대에 기반한 공동의 가치는 개인의 능력과 공로를 넘어, 개인의 능력이나 기여도를 넘어서는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낙오된 이들을 배려하는 사회적 안전망에 바탕한 상호 신뢰 속에서 완성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과 공평의 분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규성, “‘헤렘’ 전쟁기사는 과연 진멸만을 말하는가?: 가나안 정복 기사(수 5-11장)를 중심으로,” 『성경과신학』 89권 (2019), 1-25.
- 곽건용,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서울: 꽃자리, 2023).
- 구영모, “Nozick의 소유권리론에 관하여,” 『철학연구』 23집 (1995), 155-181.
- 권경휘, “로크의 재산권 이론,” 『법철학연구』 18권 3호 (2015), 185-218.
- 김광연, “공동체에서의 도덕적 자아와 타자의 얼굴,” 『기독교사회윤리』 44호 (2019), 177-198.
- 김기호, 「God’s Lawyer 오해와 이해」 (과주: 동명사, 2017).
- 김동혁, “헤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구약논단』 27권 3호 (2021), 131-154.
- 김정훈, 「사무엘서: 한계를 가진 인간과 무한한 하나님의 일하심」 (서울: 감은사, 2024).
- 김진수, “하나님 백성의 적, ‘아말렉,’” 『신학정론』 34권 1호 (2016), 213-242.
- 김은혜,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윤리문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 김혜령, 「기독교시민교양을 위한 나눔 윤리학」 (서울: 잉클링즈, 2022).
- 김희권, 「인문고전으로서의 구약성서 읽기」 (서울: 박영사, 2021).

- _____, 「자비경제학: 구약성경과 하나님 나라 경제학」(서울: PCKBOOKS, 2022).
- 노직, 로버트,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남경희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3.
원제 Nozick, Robert. *Anarchy, State, and Utopia* (Blackwell: Malden, MA, 1974).
- 로크, 존, 「통치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강정인, 문지영 옮김), 서울: 까치글방, 2022. 원제 John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1689).
- 롤스, 존,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에린 켈리 편집, 김주희 옮김), (서울: 이학사, 2016). 원제 Rawls, John.,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Erin Kelly(ed.)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정의론」(황경식 옮김), 서울: 이학사, 2003. 원제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_____, 「정치적 자유주의: 증보판」(장동진 옮김), 파주: 동명사, 2016. 원제 Rawls, John., *Political Liberalism*, Expanded Edition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 몰홀, 스테판, 애덤 스위프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김해성, 조영달 옮김),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원제 Stephen Mulhall and Adam Swift, *Liberals and Communitarians* (Oxford, UK: Wiley-Blackwell, 1996).
- 방기민, 「회복의 읽기를 통한 여호수아 해렘 본문의 윤리적 해석, 「구약논단」 27권 1호 (2021), 61-96.
- 서요련, 「롤스의 정치적 전환과 원초적 입장 개념의 변천, 「철학사상」 92호 (2024), 37-70.
- 샌델, 마이클, 「공정하다는 착각」(황규진 옮김), (서울: 와이즈베리, 2020). 원제 Sandel, Michael J.,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New York, NY: Farrar, Straus and Giroux, 2020).
- _____, 「정의란 무엇인가」(김명철 옮김), (서울: 와이즈베리, 2014). 원제 Sandel, Michael J.,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New York, NY: Farrar, Straus and Giroux, 2009).
- _____, 「정의의 한계, 고양: 멜론, 2012. 원제 Sandel, Michael J.,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Second Edition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스미스, 애덤, 「국부론: 여러 국가의 국부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탐구」(김수행 옮김), (서울: 비봉출판사, 2007). 원제 Smith, Adam.,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
- 이사야, 「윤리적 책으로 구약 읽기를 위한 한 모색: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해렘을 중

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55호 (2023), 237-264.

- Alter, Robert, *The David Story: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of 1 and 2 Samuel* (New York, NY: W.W. Norton, 1999).
- Brueggemann, Walter, *First and Second Samuel* (IBC; Louisville, KY: John Knox Press, 1990)
- Cartledge, Tony W., *1 & 2 Samuel* (SHBC; Macon, GA: Smyth & Helwys Publishing, 2001).
- Chisholm, Robert B., Jr., *1 & 2 Samuel* (TTCS;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13).
- Firth, David G., *1 & 2 Samuel* (AOTC;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8).
- Fokkelman, J. P., *Reading Biblical Narrative: An Introductory Guide*, Ineke Smit (tran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9): 원제 Fokkelman, J. P., *Vertelkunst in de bijbel: Een handleiding bij literair lezen* (Zoetermeer, NL: Uitgeverij Boekencentrum, 1995).
- _____,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II (Dover, NH: Van Gorcum, 1986).
- Freedman, David Noel, et al., eds.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I (New York, NY: Doubleday, 1992).
- Jobling, David, *1 Samuel* (BO;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1998).
- Kim, Uriah Y., *Identity and Loyalty in the David Story: A Postcolonial Reading*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8).
- McCarter, P. Kyle, Jr., *1 Samuel* (AB 8; Garden City, NY: Doubleday, 1980).
- Miscall, Peter D. *1 Samuel: A Literary Reading*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6).
- Killebrew, Ann E, and Gunnar Lehmann, eds., *The Philistines and Other Sea Peoples in Text and Archaeology* (Atlanta, G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3).
- Knoppers, Gary N. and Kenneth A. Ristau, eds. *Community Identity in Judean Historiography: Bibl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9).
- Stern, Philip D., *The Biblical Herem: A Window in Israel's Religious Experience* (Atlanta, GA: Scholars Press, 1991).
- Sternberg, Meir, *The Poetics of Biblical Narrative: Ideological Literature and the Drama of Reading*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 Sweeney, Marvin A., *1-2 Samuel* (NCBC;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Tsumura, David Toshio, *The First book of Samuel*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2007).

Tiemeyer, Lena-Sofia, ed., *The Hebrew Bible in Contemporary Fiction and Poetry* (New York, NY: Routledge, 2025).

Tolmie, Francois, *Narratology and Biblical Narratives: A Practical Guide* (Eugene, OR: Wipf and Stock, 2012).

Walton, John H. and J. Harvey Walton, *The Lost World of the Israelite Conquest: Covenant, Retribution, and the Fate of the Canaanites*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17).

Wolf, Herbert M., *Commentary on 1-2 Samuel*, Robert D. Holmstedt (rev.),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12).

검색어

사무엘상 30장, 다윗, 전리품, 분배 정의, 내러티브 비평

[ABSTRACT]

David's Principle of Spoil Distribution in 1 Samuel 30: A Comparative Study with Modern Theories of Justice

Nae-Youn Cho
Myongji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theological and ethical significance of the dispute over distributing spoils of war in 1 Samuel 30 by connecting it to contemporary discourses on distributive justice. Utilizing narrative criticism, this paper first analyzes literary strategies — such as information gaps, narrative pace, and ethical dilemmas — to highlight the internal conflict of the story. It then contextualizes the debate by categorizing Old Testament warfare regulations, distinguishing between *hērem* and ordinary warfare. The study re-examines the text through the lens of modern justice theories by Robert Nozick, John Rawls, and Michael Sandel. It argues that while the soldiers' demand for differential distribution reflects Nozick's entitlement theory, David's decision resonates with but ultimately goes beyond Rawls's difference principle. By mandating equal shares for both combatants and non-combatants, David establishes a principle of radical equality grounded in Yahwistic solidarity. This ruling demonstrates a unique theological ethos based upon the common good, distinct from the hierarchical distribution observed in Numbers 31 or the contractual approach in Genesis 14, offering a new paradigm of communal justice beyond meritocracy.

www.kci.go.kr

key words

1 Samuel 30, David, Spoils of War, Distributive Justice, Narrative Criticism

투고일: 2025년 10월 20일

심사일: 2025년 12월 15일

게재 확정일: 2025년 12월 22일

www.kci.go.kr